

- 수침고목재의 보존처리 -

박영만 | 104호 삼한실 | 18:00~18:30

목재는 선사시대부터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재료로써 수집과 가공이 용이하고 무게에 비해 강도가 우수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생활용구와 건축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목재는 섬유질로 되어 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곤충이나 미생물에 의해 부후(썩음)되기 쉬워 건조된 목조문화재나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제유물의 경우 대부분 외형은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매우 약한 상태이다. 또한 목재는 외부환경(온도, 습도)에 따라 심하게 수축 변형되어 원래 모양을 잃게 된다. 특히 저습지에서 출토된 수침목제유물의 경우는 목질 대부분이 소실되어 발굴 즉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하게 수축되어 원래 유물의 형태를 알 수 없게 되므로 약해진 목재 세포 공간에 고분자 수지를 주입함으로써 강도를 높이고 수축 변형에 대한 저항성으로 부여 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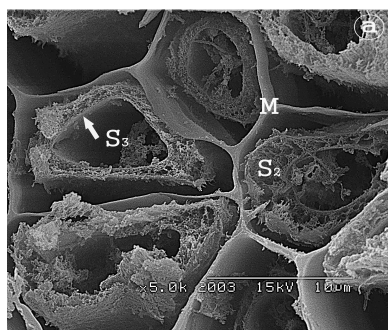


그림1. 썩은 목제유물의 세포



그림2. 창원 다호리 출토 목관 출토상태



그림3. 창원 다호리 출토 목관의 보존처리 완료 모습

독립신문

이기현 | 119호 조선3실 | 18:00~18:30

《독립신문》은 1896년(고종 33) 4월 7일 서재필徐載弼(1864~1951)이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만든 신문입니다. 창간 당시에는 한글판 ‘독립신문’ 3면과 영문판 ‘The Independent’ 1면으로 주3회 발행되었습니다. 1897년(광무 1)부터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분리되고, 1898년(광무 2) 7월 1일부터는 일간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민중의 계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독립신문》은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근대민족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자주적 근대화 사상을 강조해 국민들을 교육, 계몽했습니다. 또한 자주독립과 애국심, 신교육의 중요성, 국민 참여와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중도덕의 양양, 국민적 단결 사회 관습의 개혁 및 나라의 힘이 산업의 근대적 개발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초기에는 조선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수록했지만, 러시아와 친한 관리들이 정권을 잡고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지자, 《독립신문》은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독립신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서재필도 추방한 이후부터는 독립 협회의 기관지처럼 독립 협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1898년 12월에 독립 협회가 해산되고, 이후에도 정부의 탄압을 받다가 결국 1899년 12월에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창간 당시 《독립신문》은 서울 정동의 본사 이외에 인천·원산·부산·파주·개성·평양·수원·강화 등지에 지국을 두었습니다. 그 뒤 신문이 발전하면서 지방 지국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문판 발행 부수는 300부에서 3,000부로 증가하였고, 영문판도 구독자가 늘어 미국·영국·러시아·중국 등에 상당한 부수가 발송되었습니다. 판매는 정기 구독자에게는 배달제도와 우송제도를 병행하고 서울에서는 가판제도街販制度도 실시했습니다. 신문판매자에게 20%의 이윤을 얻도록 배정했는데, 창간 당시 1부의 생산비는 1전 6리였는데 신문 대금(판매가격)은 1부에 1전으로, 1부당 6리가 적자였습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계몽이 목적이었으므로 적자를 감수하고 발행했습니다.

제61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8년 11월 21일)

작은 돌날(몸돌)에 담긴 의미

황보창서 | 101호 구석기실 | 19:00~19:30

<작은 돌날>은 길이가 5cm 이하이고, 폭은 0.5cm 내외, 길이와 폭의 비가 2:1 이상입니다. 2만년 전후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출현해서 1만년까지 사용됩니다.

이 작은 석기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도구가 되었을까요?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뼈나 나무에 홈을 파고, 그 홈에 <작은 돌날>을 촘촘히 연속·고정시켜 칼이나 창을 만들었습니다. 날 하나가 깨지거나 빠져도 지니고 있던 것으로 교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 당시로서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이자 물성(物性)이 서로 다른 것을 처음으로 결합한 놀라운 발명품이었습니다.

돌날은 입자가 고르고 단단한 유문암, 응회암, 쳐트, 혼펠스, 흑요석 등으로 만듭니다. 특히 흑요석은 화산지대 생성 자연유리로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흑요석재는 주로 백두산에서 획득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석기는 일본지역 석기와 형태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후기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료입니다.

재질의 특징 외에 <작은 돌날> 제작의 보이지 않는 특징은 후기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때리는 힘에 누르는 힘(壓力)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았음을 보여줍니다. 힘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후기구석기가 되면 많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간석기의 등장, 여러 가지 모양의 화살촉 제작 등 신석기시대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돌날> 역시 이러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뼈와 돌이라는 혹은 나무와 돌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재질을 결합 부착해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고, 도구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술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가 금속, 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등 서로 다른 물성의 것들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후기구석기시대 <작은 돌날>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흑요석재 작은 돌날(남양주 호평, 길이 4.7, 너비 0.8, 신수 32227)

글씨를 쓰듯 난을 그리며 - 김정희의 <불이선란도>

오다연 | 서화관 202호 서화실Ⅱ | 19:00~19:30

종이 위에 수묵으로 한 포기의 난을 그린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대표작입니다. 한 포기의 난과 몇 개의 제발題跋(그림에 부치는 글)로 이루어진 이 그림을 처음 대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당혹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초와 난꽃, 글이 어우러진 화면 그 자체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겠지만 그림에 쓰여진 글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림의 제작 동기나 김정희의 의도 등을 알게 되고 그림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인 불이선란은 김정희가 제발 중에 유마維摩의 불이선을 언급했기 때문에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마경의 불이사상不二思想과 함께 그림이 어렵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난초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예적 필법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꺾인 난잎은 제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물기 없이 거칠게 그려지거나(갈필법渴筆法) 속도에 의해 묵이 거의 닿지 않고 하얗게 그려졌습니다(비백飛白). 김정희 스스로도 “초서와 예서, 기사奇字를 쓰는 법으로 그림을 그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좋아하기 힘들 거”라고 적었습니다. 더불어 김정희는 시동인 달준에게 준 이 그림을 제자인 오규일이 빼앗은 상황도 글로 남겼습니다. 난을 둘러싼 듯한 제발의 위치와 각 글마다 변화를 준 글자의 진행방향은 과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글씨는 진한 먹으로 힘이 넘치게 썼고, 가로획과 세로획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균형을 이룹니다. 또한 화면에 찍힌 김정희의 도장, 「추사秋史」, 「고연재古硯齋」, 「묵장墨莊」, 「낙교천하樂交天下士」는 그의 학문과 생각을 담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우하단의 인장들은 이후 이 그림을 소장했던 김석준, 장택상, 손재형의 도장입니다.

<불이선란도>는 서체의 특징과 글에서 언급한 인물들로 보아 김정희가 1852년 함경도 북청 유배에서 돌아와 경기도 과천에서 거주했던 시절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희의 득의작, <불이선란도>를 마주하며 김정희의 심오한 예술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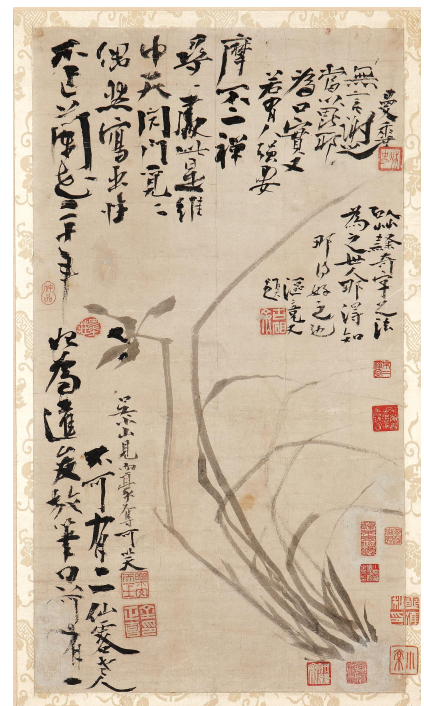


그림1. 김정희, 조선 19세기
종이에 먹, 2018년